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최 명 순

마음을 표현하는 법



난 건강하다.

24년을 살면서 병원이라곤 여드름 땀에 피부과에 며칠, 음식을 잘못 먹어 장염으로 응급실에 며칠, 사랑니 땀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과에 한번 가본 게 다다.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지만 웬만한 감기는 의례 겪는 거거니 했으며 정말 많이 아플 때만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었다. 많이 안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안간 게 아니라 난 건강하기 때문에 그쯤은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몇 년 전 나의 팔에 혈관이 아주 잘 보이던 시절 난 나의 건강함을 빌미로 헌혈을 했다.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던 나의 눈에 골수 기증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온 건 예쁜 간호사 언니가 준 음료를 빨대로 빨며 열심히 '주먹을 폼다 오므렸다'를 반복하던 그때였다.

책을 쭉 한번 훑어 본 후 난 주저하지 않고 그 예쁜 간호사 언니에게 최대한 착한 척 하며 골수기증을 하겠다고 했다. 혹시나 초코파이 하나 더 줄까



하는 기대에서 한 거 절대 아니다. 나의 건강함이 최대 상승 곡선을 그리던 그때였기 때문이다.

현혈이 끝나고 다시 주사기에 내 피를 담고 간단하게 뭉가를 쓰는 사이 정말 예쁜 간호사 언니는 나에게 음료수 하나를 더 주었다. 초코파이로 바꿔 달렐 걸 후회하며 음료수를 별걱별걱 다 마셔 버린 난 그 날 저녁 화장실을 두어 번 들락날락 거리다, 뻘어 잠이 들었다.

그 후 몇 년, 백수의 시절은 가고 난 당당히 취직을 했다. 그리고 취직한 지 두 달 반만에 나의 골수를 찾고 있다는 우편을 받았다.

‘아! 세상에 나의 골수와 맞는 사람이 있었다니!’ 난 의아해 하며 메일을 날렸다. 답장이 없었다.

‘필요 없게 됐나’ 하는 아쉬움으로 이번엔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 요금으로 10 만원을 넘게 내고 난 다음 날 이었다. 신중을 신중을 기하여 되도록 빨리 말하고 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그 뒤에 한참 더 설명할게 남았는데 날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나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정말 고맙게 나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주었다. 감동 먹었다.

조금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며 골수기

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그건 정말 별거 아니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한 채혈은 직접 오셔서 하신다고 했고, 건강검진·자가 수혈을 위한 채혈은 퇴근 후에 해도 될 것 같았고, 2박3일 수술은 휴가가 곧 있으니 그때 하면 되겠다고 완전 자기 중심 사고를 했었다. 결국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분은 한 달이나 늦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다.(정말 죄송했어요. 빨리 완쾌하시길 바랄게요.)

수술 날짜를 잡고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부모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가 아닌 ‘어떡하면 살을 뺄까’였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골수에 지방이 끼어 있진 않을까, 뽑아 보곤 너무 탁해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어쩌나, 내 팔뚝 혈관만큼이나 가늘고 약해서 혈관 터지듯 골수가 터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이 모든 원인은 비만이라 생각했고 난 운동을 시작했다. 일석이조 아닌가? 골수가 튼튼해져 좋고 난 예쁜 옷 입을 수 있어 좋고.

한 달이 지나도 나의 몸에 변화가 보이지 않자 바로 포기했다. 별의별 생각

을 다 하다 보니 시간은 유수처럼 흐르고 어느덧 수술 날, 수술실에서 주사한 대 맞고 정신이 갑자기 사라졌다. 누가 막 깨워 일어나 보니 어느덧 상황은 종료. 허리가 아프지만 앉았음 정말 자고 일어난 줄 알았을 거다.

다시 병실로 옮겨지고 극진한 간병인(간병인=친구. 협박이다. 이만큼 나을 게 다 자기 덕 이레나)의 도움은 별로 받은 게 없고, 코디네이터 선생님 도움으로 불편함 없이 이틀 후 퇴원했다.

퇴원 후 잠 잘 자고 일 잘하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난 수기를 쓴다.

나에겐 일반 사람들이 다들 그러하듯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헌데 그 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행동 같다.

전에 기증을 하셨던 분이나 앞으로 할 분들은 마음으로 느꼈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주위 사람들은 마음은 있으나 행동하길 꺼려한다. 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듯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퇴원하기 전 받은 표창장이 좀 부담스러웠다.) 단지 그분이 겪는 아픔의 1/1,000, 1/10,000 만 큼만 참을 수 있음 되는 일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수를 기증하여 오히려 깨끗한 골수를 선택해서 받는 날이 오길 바래 본다.

마지막으로 내게 골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s

속 많이 썩혀 드렸는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서울서 여기까지 세 번이나 왕래하시느라 고생하신 유효순 선생님, 친구 이름하고 똑같이 혼란을 겪게 하신 조지연 선생님(핸드폰도 똑같이 더욱 놀랐습니다), 수술 잘 해주신 의사 선생님들, 겁나게 무섭게 후유증 설명해 주셨던 마취과 선생님, 말 안들을 때 수술 받은 부위를 꼭꼭 눌러 주라면서 정말 꼭꼭 누르시던 소독해주신 선생님, 정말 예쁘게 말씀하시던 간호사 선생님들, 퇴원 후 말짱하게 집에 들어와 딸이 안 아픈줄 아셨던 울엄마, 수술 다음날 밤 움직이기 힘들어 “친구야” 부르면 벌떡벌떡 일어나 나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었던 나의 친구, 문병 왔던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이도근

순간의 고통보다 더 큰 행복



안녕하세요? 이도근입니다..

며칠 전 협회에서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내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 다만 제가 골수기증을 신청했었고 저랑 골수가 맞는 분이 계셔서 기증했을 뿐인데요.. 제가 골수기증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마스크를 보면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골수기증만이 그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결정적으로 골수기증을 신청하게 만든 건 '지금엔 라디오 시대'라는 라디오 프로였습니다.

매일 라디오를 접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에서 매주 목요일 4부에 진행되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를 들으면 늘 마음이 아파왔었죠!

라디오지만 '이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올 때마다 내가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돕기에는 저의 생활도 빠듯했기에 힘들었구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게 골수기증이었

답니다

2001년 여름쯤에 헌혈을 하러 갔다가 골수 기증을 신청하였고요.

연락이 없어서 저랑 조직이 맞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차츰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2003년 초에 한국골수은행 협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랑 조직이 맞는 사람이 있는데 골수 기증 하시겠냐고?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였고 몇 달간의 검사와 저의 골수를 기증 받으실 환자의 상황을 체크 해가며 ○월에 골수 기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골수 기증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랑 친하다는 친구들까지도 심하게 말렸었거든요!

골수를 뽑을 때 척추에서 뽑는다는니 뽑고 나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니 심지어는 골수를 뇌에서 뽑는 거 아니냐고 물은 친구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까지 한 경위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2박3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월 어느 날 오후3시경 병원에 입원 해서 다음날 오전8시쯤에 수술실에 들

어갔었구요.

10시쯤에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는데 바로 병실로 옮겨 주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쯤에 퇴원해서 집으로 왔답니다. 수술한 부위는 아마도 골반 부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위에 주사를 꽂은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수술 후유증 없냐고 물으시겠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당일 날은 수술 끝나고 솔직히 허리 부분이 아파서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그렇지지는 않았습디다.

혼자 운동한다고 걸어다니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날도 움직이기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꼈죠. 수술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 아픈 곳도 많이 나아졌고 해서 주말에는 부산 근교에 있는 원동 배내골로 친구들과 1박2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저의 직업은 운전이랍니다.

하루에 10시간 가량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라는 것이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온

답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아팠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하는데 별로 지장도 없었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은 아팠지만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나이트클럽에도 가서 놀았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 취미는 여행입니다. 거의 매주 여행을 다니죠. 산에도 자주 올라가고 수술하고도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시고 골수 기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제가 가졌던 마음처럼 도와주는 싶은데 무엇을 도와줄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골수기증희망 신청을 하십시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일주일 남짓이지만 백혈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으시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나날들을 고통 받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은 나누어 주셨으면 하네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라 생각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어서 골수기증희망 신청을 하셨으면 감사 하겠네요.

그리고 골수기증 신청을 해놓으셨다가 막상 골수가 맞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시면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백혈병 환자를 한 분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을 텐데요. 나의 자그마한 고통으로 한사람을 살려냈다는 행복감을 맛보실 수 있을텐데요.

골수 기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일본이나 대만에까지 가서 골수를 수입해 오지 않아도 될텐데요.

제가 받는 고통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고통으로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또다시 저랑 골수가 맞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또 기증을 할겁니다. 제 골수를 받으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김 중 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세상은
혼자서 살
아가는 것
이 아님을
몸소 느끼
게 되는
2 0 0 3
년...!!==

평소에 몸
이 약하던

나에게는 친어머니 같던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간을 다투어 병원을 향했다.

지금 친구는 중국에 유학중이며,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시던 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손발이 떨려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다행히 그리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아...!! 어서 엄마에게 맞는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할텐데....!!

~~~~

이런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여긴 한국골수는행협회

인데요...”

예전에 헌혈을 하면서 골수기증 희망 신청서에 서약했던 일이 떠올랐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목소리로 환자가 나타났는데 기증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과, 삶의 의미를 갖는 일을 해보고 싶어 흔쾌히 승낙을 했다.

기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기증 날짜까지 잡아 놓고도 아직 미심쩍은 듯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나는 또다시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친구 어머니에게 맞는 신장 기증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옛말이 맞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내 자신이 더욱더 자랑스러워 졌다.

지금 어머니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기증을 받은 그분도 건강해 지길 바란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정 동 희

실천하는 삶의 아름다움



기증을 결정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엄청 아프다더라, 잘못 되면 어떻게 할거냐 등등.. 그러한 일들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테지만 그래도 진행시킬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 놀 수 있다.

학생이건 사회인이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럴 때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당당히 놀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는 그건 바보나 하는 일이다.

두 번째, 다이어트.

골수라는게 뼈에 있는 피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가 많이 줄면 내 몸은 당연히 그 피를 복구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테고 그러면 다이어트의 기본인 열량 발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라는 비전문가적인 견해가 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 생각이 틀렸건 틀리지 않았건 내 몸무게는 수술이 끝나고 무려 3Kg의 감량을 이루어냈다.

세 번째, 병원에 입원해 보기

사춘기 시절, 드라마나 소설에서 죽어 가는 히로인이 멋있게 보인적이 누구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눈물나게 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창백한 주인공이 낮간지러운 대사들을 휘황찬란하게 나열하며 멋진 병원 독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놓고 죽어간다. 그러한 것들은 사춘기 소녀에게는 충분히 멋져보였다. 그래서 한번쯤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그러기에는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가는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때 밖에는 없었다.

네 번째, 칭찬받기

나는 칭찬 받는걸 무척 좋아한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을때 칭찬을 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암담하다.) 수술이라는 것 자체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큰 일 한다며 칭찬해주셨다. 물론 건강 관리 잘하라는 당부는 잊지 않으셨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

간들 중 한명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대로 세상이 돌아가주길 원한다. 주변에 재미있는 사건들로 가득하길 희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방법들 중 골수기증이라는 한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정말로 세속적인 이유로 결정된 기증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고,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었다.

무엇인가를 실천한다는 것에 거창한 이유는 없어도 된다.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앞으로 내가 만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김 평 수

건강하시죠? 건강 하셔야죠...



얼마 후면 “가족과 함께”라는 말이 방송/신문 매체를 통해 나오는 설입니다.

이것이 양지라면 음지인 병원에서 기쁨을 기약하며 보장 없는 가족을 간병수발하는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있지요. 이런 내용을 접하면 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있어 눈에 눈물이 고이며 더욱 말 못하는 아이들이 병원 환의를 입고 거꾸로 엄마를 위로할 때면.... 도와주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누구를 돕는

다는 것이 제 형편에 어려웠어요.

당시 백일 된 한 아이의 아빠로 기사 자격시험을 준비한다고 백수에 부모님께 꽤 끼치는 아들로 있을 때 시내에 위치한 헌혈의 집에 들러서 헌혈을 한 후 골수기증 마음을 먹고서 서류작성을 마치자 간호사가 설명과 함께 검사용 샘플을 채혈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왜 하는지?, 기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관심은 있어서 전문지식은 없으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행운이 있다면.... 평생 못 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골수은행협회 코디네이터 양성희씨에게서 전화가 와서 기증 여부를 확인 차 질문이 “골수기증 하신다면서요? 진짜로 하실 건지 중간에 그만 두면 준비하는 환자가 위험합니다.” 생각할 것 없이 “예.”

“가족은 의견이 어떠한지요?” 팔불출이라 일컬어도 어쩔 수 없지만 나쁜 짓만 아니면 식구들은 “OK.” 신청할 때부터 “그래 잘했어.”라고 응원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부모님; 어머니는 병원 식당 20여년, 아버지는 사고로 병원 신세가 15여년이다 보니 듣고 보고하는 것이 많아 당신 자식이 골수기증 한다 하니 급구 반대하시네요. 평소에는 어려운 이를 도와야 한다면서도요....

그래도 로또 복권보다 힘든 게 골수기증인데...

회사에 얘기하니 “우리는 못하니 너라도 해라” 하며 특별 휴가를 주시고 해서 부담 없이 시작을 했는데 입원일이 아버지 생신일이어서 전날 저녁 먹으며 “건축일을 하다 보니 지방 출장을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나와서 어머니 근무하시는

병원에 입원(병원 비용의 약50% 감면 혜택)하여 골수기증을 무사히 마치고, ‘출장중에 허리를 다쳐 그러하니 집에서 며칠 쉰다’ 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일주일 후 출근하여 지내던 중 코디네이터로부터 기쁜 전화가 왔다. 상대방도 건강을 회복중이라고.... 기분은 최상이지만 기증자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 안쓰럽다.

제일 걱정했던 것은 수술 전 종합 검사에서 약간의 불안전 때문에 약2주간 고민을 했던 것이다. 평소에 몸 관리를 못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나 싶어서였다.

지금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과 행복을 바랄 뿐이며 더 많은 이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박 철 희

마중물 같은 사랑



지난 일년을 회상하며 제가 과연 지난 일년을 보내면서 가슴 뿌듯하게 한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수기증'이었습니다.

저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일이었지요. 세상에 내가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고 희망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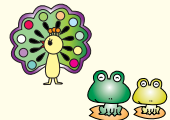
제가 수술한지도 어느덧 일년이 지나 갔네요. 처음 골수은행협회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책상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제가 골수기증을 신청했었고 골수기증을 받을 분과 저의 HLA형(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내용이 써여져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골수은행협회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제가 군복무 시절에(1995년) 기증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어요. 과연 이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난 후 나의 건강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부터 인터넷으로 골수기증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주위에 아는 의사분한테도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골수은행협회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지 거의 한 달만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후회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떨리던지... 펌프 물을 끌어올릴 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백혈병 환자 분들에게는 내일의 희망과 기쁨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골수은행협회 및 병간호하느라고 고생한 제 동생 원희와 남희, 그리고 양성희 코디네이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증 받으신 분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 아프시기 전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꺼져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이란걸....

꼬~~~~~옥 기억해 주세요!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임 석 봉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에요!...



지난 해 봄 골수은행협회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긴장되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의 편지를 보니 다른 기증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맞지만 편지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라고 생각하였다. 며칠 후 담당 코디네이터 양성희님과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름은 잘못 쓰여졌지만 나의 골수 기증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니

기증을 부탁드립니다”는 말씀을 하셨다. 오래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망설임은 없었다. 자연의 많은 작은 생물이나 꽃들이 우리의 실수와 관심 부족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후에는 후회할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애타게 골수 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 내가 기증을 거부하면 그들은 다른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더 병마와 싸워야 할 것인가’ 나의 작은 관심과 굳은 결심만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증에 동의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수술은 연기되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올 1월 협회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수술 일정이 정해지고 수술을 위해 혈액 채취를 다시 하고 건강 검진을 하였다. 수술 후 빈혈 예방을 위해 복용해야 할 약과 수술시까지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주었다. 지난해 봄부터 골수 기증을 위해 감기까지도 조심하던 터라 아직까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아 다행이었다. 수술 당일 수혈을 위한 자가헌혈을 하면서 ‘이제 정말 기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까 걱정이었다. 수술 열흘 전쯤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기증을 포기하면 한 생명

이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반대하지는 않으셨다.

수술 전날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코디네이터 조지연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녁이 나왔다. 병원에서의 첫 식사 후 혼자 병실에 남게 되자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병마와 홀로 외로이 싸웠을 생각을 하니 외로움은 금새 사라졌다.

수술 당일, 새벽부터 수술 준비를 끝내고 7시경 수술실에 들어간 후 깨어 보니 시계는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병실로 돌아와 있었다. 마침로 인해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는 않지만 엉덩이 부근과 발목에 붙어 있는 붕대를 보고 무사히 골수 채취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움직일 때 빼근할 뿐 수술 부위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는 혼자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빼근함도 많이 사라졌다. 저녁 식사 후 비어 있던 옆 침대의 환자가 돌아왔다. 나이는 나와 비슷하였는데 다음 주에 있을 수술 전에 집에 다녀오는 길이

라고 한다. 병명이 무엇인지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가져온 책을 보니 위암 환자인 모양이다. 수술을 앞두고 아내와 딸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병으로 누워 있는 그와 나의 처지를 비교해 보니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간병인 아주머니와 코디네이터 조지연님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다음날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퇴원한 후 이틀 뒤에 있을 형의 결혼식 때문에 쉬지 않고 바로 군산으로 내려갔다. 형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5일 동안 계산대에 서 있었지만 큰 불편함은 없었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건강한지 궁금해진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다며 멀리서나마 완치되는 그 날을 위해 잊지 않고 항상 기원하는 다른 한사람이 있으니 힘내기를...

